

지역 **메아리**

완주군, 자동차세 31억원 부과

완주군은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로 24,772건, 31억원을 부과했다. 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 3월, 6월, 9월 연납차량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2017년 총 세액은 총 89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또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290-2325)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요촌동 효사랑 봉사활동 펼쳐

김제시 요촌동(동장 송해숙)은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와 연계하여 13일 관내 경로당(구수동, 평화, 흥복) 세 곳을 찾아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물주물 효사랑' 봉사활동을 펼쳤다. 손마사지, 발마사지, 지평선 이월사랑회원 30여명이 매월 읍면동 경로당 순회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4쌍(까니, 외로움, 질병, 무위)를 덜어 드리고 있는 '주물주물 효사랑'은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가 직접 추진하는 맞춤형 봉사사업으로 여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송해숙 요촌동장은 "추운 날씨에 감기 드실까봐 외출은 꿈도 못 꾸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어르신들을 호감시켜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벽제라이온스클럽, 백미 전달

벽제라이온스클럽(회장 주흥용)은 13일 김제시(시장권대행 이우천)를 방문하여 어려운 이웃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백미 10Kg 100포(200만원 상당)를 전달하였다. 벽제 라이온스클럽은 해마다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으며 특히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회원들의 작은 사랑을 모았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체계적인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기증된 쌀은 지역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교통복지 명성 재확인

대중교통 시책평가 2회 연속 전국 1위...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성과금 받아

'박성일표 교통복지'가 전국적인 인정을 받았다. 13일 완주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성과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2년 단위로 평가하는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완주군은 2015년 5위에 이어 올해 1위 등 2회 연속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교통복지 1번지 완주'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완주군은 민선 6기 출범 전인 지난 2013년 74위에서 불과 4년만에 1위에 올라, 주민의 교통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민선6기 완주군은 '교통이 곧 복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완주-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500원 으뜸택시, 통학택시, 콜버스, 마을버스 등 '박성일표' 다양한 교통시책을 펼치면서 '교통복지 1번지 완주'라는 브랜드를 공고히 했다. 무엇보다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와 노선개편을 실시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 점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500원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행복콜버스, 마을버스 등의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이밖에 완주군 교통정책을 상



13일 완주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17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전국 1위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성과금 3억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징하는 대중교통 통합 고유브랜드 '부름부름~'은 지자체 가치와 이미지를 높였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 행복콜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교통사각지대를 없애고 통합콜센터를 설립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것이다"며 "시내버스가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을 콜버스 및 공공형택시가 대체해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대중교통시책평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 및 시

책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161개 시·군을 5개 그룹(A~E)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서면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평가는 교통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대중교통수단 및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 안정성 및 쾌적성, 대중교통정보 제공 확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등 19개 지표, 57개 항목으로 진행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전통 식품명인 아카데미 성료

식품명인에게 전통음식을 배우는 완주군의 '명인명장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통 식품명인 아카데미'가 호평 속에 마무리됐다. 13일 완주군은 경전면에 소재한 운완소식품명인체험관에서 아카데미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식품명인 아카데미는 지난 8월 30일부터 13일까지 4개월간 매주 수요일 식품명인 체험관에서 운영됐으며, 13개 읍면의 주민 30명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50호로 지정된 운완소 명인에게 직접 장류, 김치류, 잡곡채류 등 전통음식과 활용요리를 배우고, 명인만의 레시피를 얻을 수 있어 학습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운 명인은 파평윤씨 집안에서 내림 음식으로 내려오는 천리장을 전통의

원형 그대로 재현해 지난 2013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50호로 지정받은 완주군의 우수한 인적자원이다. 완주군은 2017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 고품격 강좌를 제공하고자 아카데미를 운영했다. 또한 교육과정과 레시피를 담은 '식품명인 레시피북'을 제작해 일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명인명장과 함께 배우는 평생학습을 통해 전통음식의 가치를 알리고 생활에 직접 활용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다양한 평생학습 자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 열려

김제시(시장 권대행 이우천)는 1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해 부양의무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 심의 의결했으며,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은 16가구 22명에 대한 적정성 심의도 진행하여 지원기로 결정했다.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세대 및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기초 생활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가구 특성 등을 파악,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인 보호하고 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심의회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필요한 가구를 보호함은 물론, 우리 주위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를 적극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는 매월 1회 이상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위기가정을 적기에 구제하고 있으며, 2016년 147가구 235명, 2017년 11월말까지 158가구 237명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즐거우고 달콤한 꽃감 맛 보러 오세요

15일 완주꽃감축제 'OPEN'

완주의 8품 중 하나인 완주꽃감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완주꽃감 축제가 열린다. 13일 완주군은 제4회 완주꽃감 축제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완주군 운주면 장선천 둔치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완주꽃감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완주꽃감 축제는 '5감만족'이란 주제로 개최되며, 완주의 깊은 산골에서 차갑고 신선한 바람으로 만들어 더욱 즐기고 달콤한 꽃감을 맛볼 수 있다. 행사는 15일 놀이체험, 노래자랑 예식에 이어 16일 오후 2시 개막식

이 열린다. 축제에서는 꽃감 만들기 체험, 꽃감 씨 단장하기, 꽃감 씨 멀리 뺏기 대회, 어린이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명품 완주꽃감을 시중보다 2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와 완주 로컬푸드도 꾸며진 농특산물 판매장, 떡거리 장터도 운영된다. 이밖에도 꽃감식 및 품평회, 꽃감을 이용해 만든 음식 전시회, 꽃감 즉석 경매행사, 꽃감 가요제, 생생 한마당 등 주민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실력과 가수들이 출연하는 I-NET 성인가요 콘서트 녹화가 진행돼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하는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지평선아카데미, 인문 명리학 강연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대령의 천기누설의 저자인 해명학술원 류동학 원장을 초청, 14일 오후 3시부터 김제시 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인문 명리학'으로 본 미래예측과 세상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인문 명리학'이란 인문학을 밑바탕으로 명리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학문으로 인간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미래의 일들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삶의 방법론 같은 학문이다. 이날 강연에서는 오랜 시간 인문명리학을 연구한 지식과 인생에서 배운 삶의 철학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김제 시민에게 흥미진

진한 미래의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류동학 원장은 단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인간과 문화를 다루는 인문학과 사주에 근거해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명리학을 결합시켜 인문명리학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는 해명학술원 원장, 대구한의대학교 한국인문학부 외래교수로 있으며 기업체 및 관공서에서 500여회에 걸쳐 특강을 펼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